

# 창고 자료관

창고 자료관 건물은 1893년에 간나이마치(館内町)의 지주였던 모리 이소지(森伊三次)에 의해 지어진 일본풍 건물로, 모리 일가의 가재도구를 수납하는 '도구 창고'로 사용되었던 건물입니다. 2014년 2월에 현재의 장소에 건물 채로 이전된 후 개수하여 '창고 자료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창고 자료관이 있는 간나이마치의 '간나이'는 관내(館内)라는 의미로 당인주거지의 내부에 위치하여 생긴 이름입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 나가사키에 온 중국인들을 거주시키기 위해 1689년에 바쿠후(幕府) 소유의 주젠지고(十善寺郷)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당인주거지입니다. 쇄국시대에 유일하게 해외와 무역을 할 수 있었던 나가사키에서 당인주거지는 데지마와 함께 179년간 해외교류의 창구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에 1859년에 개국이 시작되면서 당인주거지를 관리하던 나가사키부교소(長崎奉行所: 나가사키를 통치하는 관공서)가 1868년에 퇴거하자 매각되었고, 이 일대를 사들인 사람이 바로 모리 이소지였습니다. 모리 이소지는 나가사키현의회 의원을 지낸 지역의 명사였으며 1913년에 쑨원(孫文)이 나가사키에 공식방문했을 때에는, 복건회관(福建會館)에서 열린 화교 주최의 환영 오찬에도 초대되어 쑨원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재정비에 힘쓴 그는 간나이마치 하천에 돌다리를 설치하였고, 이때 설치된 모리바시 다리와 모리이바시 다리, 사카에바시 다리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가사키 신문사와 브릭홀 등이 있는 모리마치(茂里町)도 모리 이소지가 우라카미가와(浦上川) 강 하구를 개발하면서 만들어진 마을이며, 마을 이름도 그의 이름인 '모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창고는 2층 건물로 크기는 5m 31cm×4m 93cm입니다. 특징 중 하나인 1층 북쪽의 중앙 출입문은 바깥쪽은 철재로 만들어진 쌍여닫이 문이며, 안쪽은 흙문과 격자문, 방충망으로 구성된 3중의 미닫이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2층에는 바닥을 지탱하는 대들보를 노출한 천장장선이 특징적입니다. 2층엔 세 곳에 창문이 있으며 모두 3중으로 만들어져, 바깥쪽은 철제 여닫이문, 가운데는 철제 격자문으로, 안쪽은 판자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곳은 이러한 형태와 재료를 건축 당시의 상태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유구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 <참고문헌>

- \* 『나가사키 당관 그림집성-근세 중일 교섭사료집 6』. 오바오사무 편저. 간사이 대학 동서학술연구소 자료집 발간 9-6(간사이 대학 출판부)
- \* 『이시자키유신 필 당관관 그림첩』. 하라다 히로지 해설. (나가사키 문헌사)
- \* 『신 나가사키사』 제2권 근세 편. (나가사키시)
- \* 『사진 잡지 쑨원(孫文)과 나가사키 신해혁명 100주년』. 나가사키 중국 교류사 협회 편찬. (나가사키 문헌사)
- \* 『나가사키시 간나이마치 모리씨 소유의 창고 2동에 관한 소견』. 하야시 카즈마
- \* 『일본지명 대사전(나가사키현)』. 가도가와 서집



<1층> 3중으로 된 외미닫이 대문  
①철재로 된 쌍여닫이문 ②흙문  
③격자문 ④방충망



<2층> 외미닫이문  
①철재로 된 외미닫이문 ②철제 격자문  
③외미닫이 판자문